

12/5/20

설교 제목: 야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34 장 1 절-31 절

- (창 34: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 (창 34:2)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 (창 34: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 (창 34:4)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 (창 34: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묵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 (창 34: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 (창 34: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 (창 34: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 (창 34: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 (창 34: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 (창 34: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 (창 34: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 (창 34: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 (창 34: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 (창 34: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 (창 34: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 (창 34: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 (창 34: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 (창 34: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 (창 34:20)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 (창 34: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 (창 34: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 (창 34: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 (창 34: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 (창 34: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 (창 34:26)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 (창 34: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 (창 34: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창 34: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창 34: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창 34: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이 아직 밧단아람에 머물러 있을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엘에서 서원한대로 밧단아람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창 31:13) 나는 베엘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당신의 명을 따라 가나안 땅 베엘로 돌아가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그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야곱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측은히 여겨 지난 날을 용서하고 서로 아름다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받고 무사히 가나안에 도착하자 야곱의 마음이 변합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문제가 해결되자 탄 마음을 품었습니다.

야곱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곧장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인 베엘로 올라가지 않고 숙곳으로 가서 거기서 자신을 위한 집과 가축을 위한 우릿간을 짓고 삽니다.

(창 33: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얼마 후 숙곳을 떠났을때도 야곱은 베엘 대신 세겜 성으로 가서 그 성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에게 사서 그곳에 정착합니다.

세겜 일대는 구릉지여서 풀과 나무가 풍부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창 33:18)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창 33:19) 그가 장막을 친 발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창 33:20)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베엘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도, 뒤따라 세일로 가겠다고 한 형과의 약속도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고 초목이 무성하여 가축을 기르기에 최적합지인 세겜 땅에 정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야곱이 언약대로 베엘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아 부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빠진 야곱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창 34:1)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창 34:2)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창 34: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창 34:4)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하물의 아들이자 그 땅의 추장인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여 욕을 보였습니다.

비록 강간을 하여 욕을 보이긴 했지만 세겜은 디나를 사랑했기에 아버지 하물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아들 세겜의 부탁을 받은 아버지 하물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딸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 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창 34:5)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이 들에서 목축하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 (창 34:6)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 (창 34:7)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라
- (창 34:8)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 (창 34:9)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 (창 34:10)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 (창 34:11)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 (창 34:12)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하몰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디나를 자신의 아들 세겜과 결혼시키고 통혼을 하여 서로의 딸들을 주고 받으며 거주하고 땅도 매매하고 기업도 얻으며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또한 세겜은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주면 청하는대로 혼수와 예물을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누이 디나를 강간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복수의 날을 갑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에게 너희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서로 통혼하겠다고 대답합니다.

- (창 34:13)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 (창 34:14)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 (창 34:15)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 (창 34:16)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창 34:17)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 아들들이 세겜이 누이 디나를 강간한 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인 것입니다.

세겜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때 그들을 습격하여 다 죽여버릴 심산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좋게 여기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여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창 34:18)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창 34:19)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창 34:20)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창 34:21)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창 34:22) 그러나 우리 중의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창 34:23)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창 34:24)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할례를 행하고 통혼하면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들이 우리 소유가 될 것이라면서 설득하였고 그리하여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지 삼 일째 되는 날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부지중에 성읍을 기습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 삼 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특별히 이날을 택해 성읍을 기습하여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성읍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세겜의 집에 있던 자기 누이 디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과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힘도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당한 것입니다.

(창 34:25) 제삼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창 34:26)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들은 성읍에 가서 노략질까지 했습니다.

(창 34:27)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창 34:28)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창 34:29)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 사로잡아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나와 내 집이 멸망하게 생겼다며 탄식합니다.

(창 34:30)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와서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을 속여 그곳 남자들이 모두 할례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는 틈을 타 성읍을 습격하여 그곳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자녀와 아내들까지 사로잡아 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야곱과 야곱의 집은 꼼짝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 아들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누이가 창녀 취급을 받았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창 34:31)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 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야곱 아들들의 이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야곱의 집은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 비롯된 야곱 일가의 절체절명의 위기는 피상적으로 보면 그 원인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하물의 아들 세겜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야곱 일가의 이같은 위기는 야곱 자신이 초래한 것입니다.

야곱이 벤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나무와 풀이 무성하여 가축을 기르며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세겜에 땅을 사고 그곳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야곱은 벤엘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에 온전히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벤엘에서 서원한대로 행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벤엘에서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그가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의 서원과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당신의 명에 순종하지 않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동시에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야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세겜 땅에 정착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야곱이 당신의 명을 이행할 수 밖에 없도록 강권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이 야곱에게 생명의 길이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 길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은 야곱을 징계하시고 벳엘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택하신 자들을 징계하심으로 언약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환란 중에 계십니까?

먼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언약의 길인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언약의 길이 아니라면 곧바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언약의 길이 곧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